

아주경제

"다방에서 카페까지 커피를 통한 사회문화 읽기"..'커피사회' 전시 문화역서울284

홍준성 기자 | 2018. 12. 31

-12월 21일~2019년 2월 17일까지 '문화역서울 284'

-회화, 미디어, 조형, 사진, 영상 등 40여명의 작가 또는 팀(단체)의 작품



[커피사회'_커피, 케이크, 트리 /문화역서울284 제공]

커피는 약 100여 년간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사회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기호 식품 이상의 가치를 담아 우리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 근현대생활문화에 녹아 들어간 커피문화의 변천사를 조명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 사회의 커피문화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전시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이 주관하는 '커피사회' 전시가 내년 2월 17일까지 옛 서울역 역사인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다방에서 찾집, 그리고 카페로 진화해온 과정에 담긴 문화적 징후를 시간적 경험의 흐름을 따라 들여다보며 커피가 상징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포착하여 전달한다.

전시는 커피에 대한 문화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읽어보는 '커피의 시대', 근대 문화공간 그릴에서 오늘날의 커피를 마시며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교차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근대의 맛', 전시 내부에 액자식으로 성립하는 또 하나의 전시이자 힙적인 컨템퍼러리의 공간 '윈터 클럽', 문화역서울 284 곳곳에 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과 형태의 카페사용법을 찾아보는 '문화역 카페사용법', 역전을 테마로 연말연시를 위한 문화역서울 284의 새로운 굿즈를 소개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선물의 집'으로 구성됐다.



[‘커피사회’_문화역서울284에 걸린 ‘커피사회’ 배너 /문화역서울284 제공]

전시에는 회화, 미디어, 조형, 사진, 영상, 그래픽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성기완, 박길중, 신범순,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중간공간제작소, 김성기, 김남수, 박민준, 윤석철, 백현진, 김창겸, 이주용, 양민영, 유명상, 진짜공간(홍윤주)&안성현, 김찬우&더37병커, 주재환, 김노암, 김성기, 김수인, 윤율리(아카이브 봄), 김경태, 김성구, 김한샘, 들토끼들, 양아영, 이상익, 최

ThisWeekendRoom

장원, 권경민, 최근식, 모토엘라스티코(MOTOElastico), 시모네 카레나, 마르코 브르노, 김민지, 강완규, 전산, SWNA, 워크룸, 박길종, 서울과학사 등 약 40여명의 작가 또는 팀(단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출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181231163533143>)